

음운의 변동

개념 1 음운과 음운체계

1. 주요 소리

- ① 비음 : ㅁ, ㄴ, ㅇ - 공기가 코 안을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
- ② 유음 : ㄹ
- ③ 구개음 : ㅈ, ㅉ, ㅊ
- ④ 어감에 따라

(ㄱ) 예사 소리(평음)	ㄱ	ㄷ	ㄴ	ㅅ	ㅈ
(ㄴ) 된소리(경음)	ㄱ	ㄷ	ㅈ	ㅅ	ㅉ
(ㄷ) 거센 소리(격음)	ㅋ	ㅌ	ㅍ		ㅊ

✓ 소리의 울림에 따라

- (ㄱ) 울림 소리(유성음) - 비음(ㅁ, ㄴ, ㅇ), 유음(ㄹ) 모든 모음은 유성음
- (ㄴ) 안울림 소리(무성음) - 나머지 15개 자음

2. 소리의 길이

국어에서는 같은 모음을 특별히 길게 소리냄으로써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소리의 길이는 뜻을 구별하여 준다는 점에서 자음이나 모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다.

✓ **비분절 음운** : 소리의 길이, 억양

① 긴소리 -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 나타남.

- | | |
|----------------------|-----------------|
| 밤(夜) - 밤:(栗) | 벌(罰) - 벌:(蜂) |
| 발(足) - 발:(簾) | 배(梨) - 배:(倍) |
| 굴(貝類) - 굴:(窟) | 거리(街) - 거:리(距離) |
| 솔(松) - 솔:(옷솔) | 말다(卷) - 말:다(勿) |
| 눈(目) - 눈:(雪) | 엮다(包) - 엮:다 |
| 걸다(치우다) - 걸:다(두 다리로) | |

② 짧은 소리 - 본래 길게 나던 단어도,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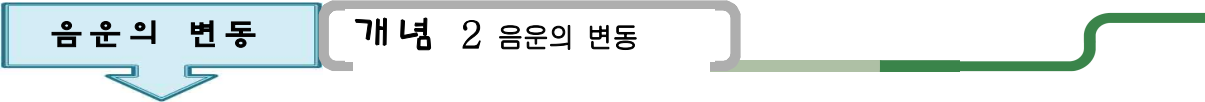
예) 밤: → 알밤, 말: → 한국말, 솔: → 옷솔

3. 음절(音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마디를 나타내는 문법 단위로, 음절은 의미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음성학적 문법 단위일 뿐이다. 음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한다. **모든 말은 음절 단위로 마디를 이루어서 발음된다.**

✓ 국어의 음절 구조

- ① 모음단독 예) 아
- ② 자음+모음 예) 가
- ③ 모음+자음 예) 약
- ④ 자음+모음+자음 예) 강



🎧 개념

어떤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 그 음운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

변동(공시적)	변화(변천, 통시적)
공시대의 일정한 환경에서 변하고, 그 환경이 아니면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일시적인 것	오랜 시간에 걸쳐 바뀌어 굳어진 것.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자생적 : 음운 자체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변화하는 것 결합적 : 음운의 환경, 결합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	
결합적 ① 결정적 -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남 ② 수의적 - 임의적으로 발생	

🎧 종류

- 교체 : 어떤 음운이 형태소의 끝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것.
- 축약 :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것.
- 탈락 : 두 음운 중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것.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 탈락)
- 첨가 : 형태소가 합성될 때, 그 사이에 다른 음운이 덧붙는 것.



음운의 변동

EBSi 정리

음운 변동의 분류: 음운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함.

1)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소리만으로 발음되는 현상 예) 꽃 → [꼰], 부엌 → [부억], 잎 → [입], 박 → [박]
비음화	‘ㄱ, ㄷ, ㅂ’이 비음 앞에서 각각 비음인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 예) 막는 → [망는], 받는다 → [반는다], 잡는다 → [잠는다]
유음화	‘ㄴ’이 ‘ㄹ’의 앞 또는 뒤에서 유음인 ‘ㄹ’로 바뀌는 현상 예) 칼날 → [칼랄], 달님 → [달림], 권력 (權力) → [퀄력], 난로 → [날 : 로]
구개음화	‘ㄷ, ㅌ’이 ‘ㅣ’나 반모음 ‘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날 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ㄷ’ 뒤에 접미사 ‘- 히 -’가 결합되면 [치]로 발음함.) 예) 미닫이 → [미 : 다지], 같이 → [가치], 굳히다 → [구치다]
경음화 (된소리되기)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예) चु고 → [츄꼬], 안다 → [안 : 따], 책상 → [책쌍], 할 것을 → [할꺼슬]

2) 탈락: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자음군 단순화	음절 끝에서 겹받침의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 예) 묵 → [목], 값 → [갑], 짚다 → [점 : 따], 짚고 → [짚꼬], 여덟 → [여덜]
‘ㄹ’ 탈락	‘ㄹ’이 끝소리인 어근이 다른 어근이나 접사와 결합하거나, ‘ㄹ’이 끝소리인 어간이 일부 어미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는 현상 예) 바늘+- 질 → [바느질], 살 +- 니 → [사 : 니]
‘ㅎ’ 탈락	어간에서 음절의 끝 자음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현상 예) 넣어 → [너어], 쌓이다 → [싸이다], 앓으니 → [아느니]
‘으’ 탈락	어간의 끝소리 ‘으’가 ‘아,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담그 +- 아라 → [담가라], 쓰 +- 어서 → [써서], 뜨 +- 어 → [떠]

3) 첨가: 없던 음운이 덧붙는 현상

<p>‘ㄴ’ 첨가</p>	<p>파생어나 합성어에서, 또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ㅣ’나 반모음 ‘j’로 시작할 때 ‘ㄴ’이 그 사이에 덧붙는 현상 예) 맨입 → [맨닙], 숨이불 → [숨:니불], 색연필 → 색년필 → [생년필], 한여름 → [한녀름], 옷 입다 → 님따 → [온닙따]</p>
<p>반모음 첨가</p>	<p>반모음 ‘j’가 덧붙는 현상으로 ‘j’를 붙여 발음해도 허용됨. 예) 피어 → [피어/피여], 아니오 → [아니오/아니요]</p>

4) 축약: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p>거센소리되기</p>	<p>‘ㄱ, ㄷ, ㅂ, ㅈ’이 인접한 ‘ㅇ’과 결합하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현상 예) 입학 → [이팍], 좋다 → [조:타], 각하 → [가카], 농지 → [노치]</p>
---------------	--



음운의 변동

음운의 변동

개념 3. 말음법칙, 자음군단순화

1. 음절의 끝소리 규칙(말음법칙)

① 개념 : 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소리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소리 중 하나로 변하여 발음되는 현상.

② 규칙 : 끝소리가 바뀌는 자음

- ㅍ → ㅂ / 음절의 끝소리에서
- ㅅ, ㅆ, ㅈ, ㅊ, ㅌ, ㅎ → ㄷ / 음절의 끝소리에서.
- ㄱ, ㅋ → ㄱ / 음절의 끝소리에서.

• 홀받침의 발음

- ① l음절의 경우 : 낫, 낫, 낫, 낫.낫 → 낫
- ②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 낫+으로 → 나스로
- ③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 꽃 위 → 꼰 위 → 꼬 뒤

2. 자음군 단순화

- ① l음절의 경우 : 값 → 갑, 흙 → 흑
- ②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 흙이 → 흘기, 없어 → 업씨
- ③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 흙 안에 → 흑 안에 → 흐 간에
- ④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 앞 : 흙도 → 흑또, 없다 → 업따

- ‘ㄴㅅ, ㄱㅅ, ㄹㅅ, ㄴㅌ, ㄴㅈ’은 첫째 자음이 남는다.

- 예 값도 (갑또), 뭇도 (목또), 할고 (할꼬), 앓고 (안꼬)

- ‘ㄹㅁ, ㄹㅂ’은 둘째 자음이 남는다.

- 예 짚다 (점따), 읊지 (읍찌)

- ‘ㄹㄱ, ㄹㅂ’은 불규칙적이다.

- 예 닭도 (닥또), 읽지 (익찌), 읽고 (일꼬), 밭다 (밭따), 넓다 [널따]

‘ㄴㅎ, ㄹㅎ’의 뒤에 ‘ㄷ, ㅈ, ㄱ’이 오면 ‘ㅎ’도 축약되어 발음된다.

- 예 많다 (만타), 달다 (달타)

✓ 'ㄹ'의 발음.

① 일반적인 발음: 앞의 'ㄹ'이 남는다.

② 예외적 현상.

- 'ㄹ' 뒤에 자음이 오면 앞의 'ㄹ'이 탈락된다.

예) ㄹ다 (ㄹ따), ㄹ소 (ㄹ소 → ㄹ쏘), ㄹ지 (ㄹ:찌) ㄹ는 (ㄹ는 → ㄹ:는), ㄹ제 (ㄹ제)

- 'ㄹ'이 'ㄹ'과 'ㄹ'이 붙는 경우(ㄹㄹ) 앞의 'ㄹ'이 탈락된다.

예) ㄹ죽하다 (ㄹ죽하다) ㄹ둥글다 (ㄹ똥글다)

✓ 'ㄱ'의 발음.

① 일반적인 발음: 뒤의 'ㄱ'이 남는다. (앞의 'ㄹ'이 탈락됨.)

② 예외적인 현상: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뒤의 'ㄱ'이 탈락된다.

예) 맑게 (말궤), 뭉고 (뭉꼬), 얼거나 (얼이거나)

음운의 변동

개념 4 음운의 동화

음운의 동화 개념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의 특징을 닮아가는 현상. 인접한 두 음운이 서로 닮는 현상에 관한 규칙.

(1) 자음 동화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자음 + 자음일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 자음을 닮아서 그와 비슷한 성질의 자음이나 같은 소리로 바뀌거나(순행, 역행), 양 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는(상호) 음운 현상.

- 대표적인 현상 : 비음화와 유음화



음운의 변동

○ 비음화

↳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 (ㄹ, ㄴ, ㅇ)이 되는 현상.

↳ ‘ㅂ, ㄷ, ㄱ’이 뒤에 비음 ‘ㄹ, ㄴ’이 올 때, 이에 동화되어 같은 위치의 비음 ‘ㄹ, ㄴ, ㅇ’으로 각각 바뀐다.

[ㅂ, ㄷ, ㄱ] → [ㄹ, ㄴ, ㅇ] / _ [ㄹ, ㄴ]

- 입술소리 ‘ㅂ’은 비음 ‘ㄹ, ㄴ’ 앞에서 ‘ㅂ’과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인 [ㄹ]으로 발음된다.

예) 밥물, 입는,

- 혀끝소리 ‘ㄷ’은 비음 ‘ㄹ, ㄴ’앞에서 ‘ㄷ’과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인 [ㄴ]으로 발음된다.

예) 따며느리, 달는, 결혼

- 여린입천장소리 ‘ㄱ’은 비음 ‘ㄹ, ㄴ’ 앞에서 ‘ㄱ’과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인 [ㅇ]으로 발음된다.

예) 국물, 막니

- 파열음 ‘ㅂ, ㄷ, ㄱ’의 뒤에 ‘ㄹ’이 오면, 먼저 ‘ㄹ’→‘ㄴ’이 되고, 그 다음 ‘ㅂ, ㄷ, ㄱ’이 변한 ‘ㄴ’을 닮아서 각각 비음 ‘ㄹ, ㄴ, ㅇ’이 된다.

예) 설리, 백로

- 비음 ‘ㄹ, ㅇ’ 뒤에서 ‘ㄹ’ → ‘ㄴ’으로 동화됨.

ㄹ → ㄴ / 받침 ‘ㄹ, ㅇ’ ‘ㄱ, ㅂ’ 뒤에서 예) 남루, 종로

○ 유음화

↳ 유음(ㄹ)의 영향으로 ‘ㄴ’이 유음이 되는 현상.

[ㄴ] → [ㄹ] /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트, ㄹㅎ’등의 겹자음 뒤에서도 ‘ㄴ→ㄹ’로 동화된다.)

예) 칼날, 찰나 / 앓는, 훑는 / 신라, 천리, 논리, 대관령, 전라도, 광한루

(2) 모음 동화 - 모음과 모음이 만날 때 한 모음이 다른 모음을 닮는 현상.

○ ‘ㅣ’모음 역행동화

아비 → (애비) 잡히다 → 자피다 → (재피다) 아지랑이 → (아지랭이)

• ‘ㅣ’모음 역행동화(=움라우트 현상)는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 다음의 경우는 표준어로 인정한다.

넙비, 멧쟁이, (불을) 땡기다

○ 이중모음화 (=ㅣ모음 순행동화)

• 이중모음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어 → (기여) 먹이였다 → (머기열따)

※ 다만, ‘되어, 피어, 이오, 아니오’의 경우는 [어]와 [오]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와 [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3) 모음 조화 - 양성 모음 ‘ㅏ, ㅑ’는 ‘ㅏ, ㅑ’끼리, 음성모음 ‘ㅓ, ㅕ, ㅗ, ㅛ’는 ‘ㅓ, ㅕ, ㅗ, ㅛ’끼리 어울리려는 현상.

○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 용언의 어간 ㅏ, ㅑ일 때(양성) : -아, -아라, -아서, -았-, -아야

↳ ㅓ, ㅕ일 때(음성) : -어, -어라, -어서, -었-, -어야

○ 의성어, 의태어에서. - 모음조화는 의성 부사와 의태 부사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사각사각 - 서걱서걱, 출렁출렁 - 출렁출렁

•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느낌의 차이

↳ 양성모음 : 밝음, 경쾌함, 가벼움, 빠름, 날카로움, 작음.

↳ 음성모음 : 어두움, 무거움, 느림, 둔함, 큼.

• 모음 조화는 표기에 반영된다.

(현대 국어로 오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져서 표기법에도 영향을 주었다.)

• **ㅁ 불규칙 형용사** - 가까워, 아름다워 / •그 외 - 깡충깡충, 오순도순, 오뚝이, 소꿉질

(4) 구개음화 -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ㅍ’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자음 +모음], 센입천장소리(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 ‘ㄷ’ 뒤에 형식형태소 ‘ㅎ’가 오면 먼저 ‘ㄷ’과 ‘ㅎ’이 결합하여 ‘ㅌ’이 된 다음, ‘ㅌ’이 구개음화하여 ‘ㅊ’이 된다.

예) 달혀 [다터] → [다쳐] → [다처]

굳히다 [구티다] → [구치다]



음운의 변동

음운의 변동

개념 5 축약과 탈락

(1) **축약** - 두 소리가 이어질 때, 두 소리의 성질을 모두 가진 소리로 줄어드는 현상.

○ 자음 축약

ㄴ, ㄷ, ㄸ, ㅈ, ㅊ이 ‘ㅎ’과 만나면 ‘교, 트, 초, 커’으로 변하는 현상.

ㄴ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된다.

좋고 → (조코)	많다 → (만타)	울지 → (을치).
잡히다 → (자피다)	닫히다 → (다치다)	먹히다 → (머키다)

-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만, 표기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 모음 축약

ㄴ 두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 앞뒤 형태소의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들면서, 그 중 하나의 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

오+아서 → 와서	두+었다 → 뒸다	뜨+이다 → 띄다
되+어 → 돼	가지+어 → 가져	쓰+이어 → 쓰여, 씌어

- 축약형은 표기에 반영된다.

☞ 관련 맞춤법 규정

제 38 항 ‘ㅏ, ㅑ, ㅓ, ㅕ’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싸이어	쌌어 싸여	뜨이어	띄어
보이어	봌어 보여	쓰이어	씌어 쓰여
쏘이어	췌어 쏘여	트이어	띄어 트여
누이어	눠어 누여		

어간 끝 모음 ‘ㅏ, ㅑ, ㅓ, ㅕ’ 뒤에 ‘-이어’가 결합하여 줄어질 때에는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난다. 곧, ‘이’가 앞(어간) 음절에 올라붙으면서 줄어지기도 하고, 뒤(어미) 음절에 내리이어지면서 줄어지기도 한다.

까이어→깨어/까여 꼬이어→꼬어/꼬여 누이어→눠어/누여
 띄이어→띄어/(눈이) 띄어 쓰이어→씌어/쓰여 트이어→띄어/트여

‘놀이다’의 준말 ‘뇌다’의 경우는 ‘뇌어’로 적지만, ‘놀이어’가 줄어진 형태는 ‘놀여’로 적는다. 다만, ‘띄어쓰기, 띄어 쓰다, 띄어 놀다’ 따위는 관용상 ‘뜨여쓰기, 뜨여 쓰다, 뜨여 놀다’ 같은 형태가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뜨이우다)띄우다, (쓰이우다)씌우다, (트이우다)띄우다’처럼 ‘-이’ 뒤에 다시 ‘-우’가 붙는 형식에서는 ‘이’를 앞 음절에 올려붙여 적는다.

(2) 탈락 - 두 소리가 이어질 때 한 소리가 탈락하는 것. 앞뒤 형태소의 두 음운이 마주칠 때, 그 중 한 음운이 완전히 탈락하는 경우.

○ 자음 탈락

● ‘ㄹ’탈락

- 합성·파생 과정에서 ‘ㄴ, ㄷ, ㅅ, ㅈ’ 앞에 ‘ㄹ’이 탈락된다.

달+달+이 → 다달이, 울+짓다→우짚다.
솔+나무 → 소나무, 불+삼→부삼

-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ㄹ’이 탈락되기도 한다.

같다 → 가니, 간, 갑니다, 가시오, 가오
동글다 → 동그니, 동급니다, 동근, 동그시다, 동그오.
놀다, 불다, 어질다.

● ‘ㅎ’탈락

- ‘ㅎ’을 끝소리로 가지는 어간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 앞에서 ‘ㅎ’이 탈락된다.

- 역사적으로 ‘ㅎ’을 가진 ‘하늘ㅎ, 나르ㅎ’ 등이 현대에서 모두 자취를 감춘 것은 ‘ㅎ’탈락의 영향으로 보인다.

좋은 → (조은) 넣어 → (너어) 쌓이다 → (싸이다)
끓이다 → (끄리다) 넣은 → (나은)

○ 모음 탈락

● ‘ㅡ’탈락: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ㅡ’를 가진 어간이 모음으로 된 어미 ‘-어/아’앞에서 모음 충돌을 막기 위해 어간의 일부인 ‘ㅡ’가 탈락된다.

뜨다 : 떠, 떴다. 끄다 : 꺼, 껴다. 크다 : 커, 컸다
담그다 : 담가, 담갔다 고프다 : 고폐, 고포다.

● 동음탈락 : 이어진 같은 소리가 탈락함.

타아 : 타 타았다 : 탸다 서어 : 서 서었다 : 섰다
켜어 : 켜 켜었다: 컸다 퍼어 : 퍼 퍼었다 : 뻬다



음운의 변동

음운의 변동

개념 6 사이소리 현상

(1) 사이소리 현상 - 교체, 된소리되기

- ┆ 두 개의 실질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 명사를 이룰 때**
- ┆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
- ┆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

- ① 국어의 경우
-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에는 사이시옷(ㅅ)을 적어야 한다.

초 + 불 → 초뿔 → (초뿔) 배 + 사공 → 뱃사공 → (배싸공)
 시내 + 가 → 시냇가 → (시내까) (된소리되기)

-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

밤 + 길 → (밤길) 촌+사람 → (촌싸람)
 등 + 불 → (등뿔) 길 + 가 → (길까)

※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합성명사도 있다.

은 + 돈 → (은돈) 콩 + 밥 → (콩밥) 기와 + 집 → (기와집)
 오리 + 발 → (오리발) 말 + 방울 → (말방울) 고래 + 기름 → (고래기름)

- ② 한자어의 경우
- 한자어는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아래 여섯 개 제외)
- 발음에는 나타나도 표기에 적용하지는 않는다.

㉠ 초점(焦點) → (초점) 문법(文法) → (문뽕) 물가(物價) → (물까)

- 한자어 가운데, 다음의 두 음절로 된 한자어 6개만 예외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곳간(鹿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

(2) 사이소리 현상 - 첨가 ‘ㄴ’, ‘ㄴㄴ’

○ 앞 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ㄱ, ㄴ’으로 시작되면 ‘ㄴ’소리가 첨가되는 일이 있다.

이 + 몸 → 잇몸 → (인몸) 코 + 날 → 콧날 → (콘날)

○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j로 시작될 때에는 ‘ㄴ’이 하나 혹은 둘로 겹쳐 나는 일이 있다.

• ‘ㄴ’이 하나 첨가
 집 + 일 → (집닐) → (집닐) 부엌 + 일 → (부엌닐) → (부엌닐)
 숨 + 이불 → (숨니불) 논 + 일 → (논닐)
 콩 + 옛 → (콩녘) 물 + 약 → (물낙) → (물락)
 • ‘ㄴ’이 하나 겹쳐 나는 경우
 아래 + 이 → 아랫니 → (아랫니) 덧 + 이 → (던니)

✓ 된소리되기 (= 경음화)

- 된소리의 짝이 있는 약한 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이들 약한 소리 뒤에서 각각의 된소리 ‘ㄱ, ㄷ, ㅂ, ㅅ, ㅈ’으로 바뀌는 현상.
- 약한 소리가 겹쳐날 때 두 소리가 한 소리가 되는 현상으로, 발음의 편의를 위한 자연적 현상.
- 일반적으로 **안울림소리끼리 만날 때** 일어난다.

✓ 사이소리 현상과 된소리 현상의 비교

		된소리되기	사이소리 현상
조건 1		형태소 + 형태소의 결합 (폭이 넓음)	실질 형태소 + 실질 형태소 = 합성 명사 (폭이 좁음)
조건 2		안울림소리 + 안울림소리=된소리로	울림소리+안울림소리=된소리로
형성 되는 종류	일반적	①안울림소리+안울림소리 - 합성어 형성시 예 국밥, 꽃다발, 앞길, 옆집, 젓소 - 어간 + 어미 예 책도, 밥도, 떡과 - 체언 + 조사 예 깎다, 있던, 낫설다 - 어근 + 접사 예 탈개, 읊조리다, 값지다	①울림소리(실질)+ 안울림소리(실질) 예 솥불, 뱃사공, 밤길, 불비, 촌사람, 등 불, 말소리, 길가
	허용	②울림소리(ㄴ, ㄹ)+안울림소리(형식) (=어간+어미) 예 안고, 넓고, 젊지	②울림소리+울림소리(ㄱ, ㄴ) → ‘ㄴ’소리 덧 남. 예 잇몸, 콧날 ③* + ㅣ나 반모음 j → ㄴ 또는 ㄴㄴ소리 겹침. 예 숨이불, 논일, 물약, 솔잎, 아랫니, 눈 요기
그 밖의 특징			예외가 많음(수의적 변화) 의미: ~에 있는, ~의 의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 (고깃배-고깃배) 6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한자어는 표기하 지 않음. 두 단어를 이어서 발음할 때에도 이 현상 이 있음.



음운의 변동

출제 Point

.....

Step 1 EBSi 수능특강

1. EBSi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이번 시간에 배운 음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음운은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 ㉠
- 각 언어의 음운 체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 ㉡
- 한 언어에서도 음운 체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 ㉢
- 음운에는 비분절적인 말소리 요소도 포함된다. …………… ㉣
- 음성은 구체적인 소리지만 음운은 추상적인 소리이다. …………… ㉤

- ① ㉠: ‘김’과 ‘감’은 ‘ㅣ’와 ‘ㅏ’에 의해 그 뜻이 구별되므로 ‘ㅣ’와 ‘ㅏ’는 우리말의 음운이다.
- ② ㉡: 한국어에서는 영어 ‘right[rait]’와 ‘light[lait]’에서의 [r]과 [l]을 다른 음운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③ ㉢: ‘나’는 처음과 나중의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를 서로 다르게 하여 소리를 낸다.
- ④ ㉣: [눈]과 [눈:]은 소리의 길고 짧음을 통해 그 의미가 구별된다.
- ⑤ ㉤: 두 사람이 각각 ‘이’를 소리 낼 때 물리적인 소리는 서로 다르지만 듣는 사람은 같은 소리로 인식한다.

2. EBSi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용언의 활용 양상을 보면 환경에 따라 음운의 탈락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음운 탈락이 이루어진 소리를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발음에서만 탈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	㉡
①	줄- + -는 → [조:는]	크- + -어서 → [커서]
②	쌍- + -으니 → [짜으니]	싫- + -은 → [시른]
③	크- + -어서 → [커서]	기쁘- + -어서 → [기빠서]
④	기쁘- + -어서 → [기빠서]	쌍- + -으니 → [짜으니]
⑤	싫- + -은 → [시른]	줄- + -는 → [조:는]



음운의 변동

3. EBSi <보기>의 ㉠~㉤은 각각 공통된 음운 변동 규칙이 적용되는 말끼리 짝지은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낮익히다[난니키다]	긫하다[구타다]
㉡ 낚는[낭는]	있는[인는]
㉢ 많고[만 : 코]	알지[알치]
㉣ 닭만[당만]	값나가는[감나가는]
㉤ 뭇도[목또]	넓지[널찌]

- ① ㉠과 ㉡: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제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② ㉠과 ㉢: ‘ㅎ’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과 ㉣: 한 음운이 인접한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것과 닮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과 ㉤: 예사소리였던 것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⑤ ㉣과 ㉤: 받침 자음 중의 일부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4. EBSi <보기>의 ㉠~㉤에 따라 음운 변동 과정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우리말의 음운 변동은 크게 다음과 같이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것
- ㉡ 첨가: 없던 음운이 덧붙는 것
- ㉢ 탈락: 한 음운이 없어지는 것
-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것

① 걸모습	㉠ →	걸모습	㉡ →	[건모습]
② 탓하다	㉠ →	탄하다	㉢ →	[타타다]
③ 색연필	㉡ →	색년필	㉣ →	[생년필]
④ 흙냄새	㉢ →	흑냄새	㉠ →	[홍냄새]
⑤ 값하다	㉣ →	갑하다	㉢ →	[가파다]

5. EBSi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어의 단모음을 혀의 전후 위치와 높낮이,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혀의 위치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입술 모양 혀의 높이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ㄱ	ㅡ	ㅈ
중모음	ㅓ	ㅗ	ㅑ	ㅛ
저모음	ㅕ		ㅓ	

- 전설 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놓이고 후설 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놓이는 모음이다.
- 고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가장 높고 저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가장 낮다. 혀가 낮을수록 입이 더 벌어진다.
- 원순 모음은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모음이고 평순 모음은 그러지 않는 모음이다.

- ① ‘ㅣ’에서 ‘ㅕ’로 발음을 바꾸려면 입을 크게 벌리고 혀의 높이를 낮추면 되겠군.
- ② ‘ㄱ’에서 ‘ㅈ’로 발음을 바꾸려면 혀의 최고점을 뒤쪽으로 옮겨 가면 되겠군.
- ③ ‘ㅑ’에서 ‘ㅓ’로 발음을 바꾸려면 혀의 최고점을 앞쪽으로 옮겨 가면 되겠군.
- ④ ‘ㅑ’에서 ‘ㅡ’로 발음을 바꾸려면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면서 혀의 위치를 높이면 되겠군.
- ⑤ ‘ㅈ’에서 ‘ㅛ’로 발음을 바꾸려면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린 채 혀의 높낮이를 바꾸며 입의 벌어짐을 조절하면 되겠군.



음운의 변동

6. EBSi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학생: ‘흙[흑]’과 ‘밖[박]’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 변동의 종류가 궁금해요.
 선생님: 두 단어 뒤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을’을 결합해 보세요. ‘흙[흑]’과 조사 ‘을’이 결합하면 연음이 일어나 ‘(㉠)’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밖[박]’과 조사 ‘을’이 결합해도 연음이 일어나 ‘(㉡)’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발음이 [흑], [박]임에도 이들을 각각 ‘흙’, ‘밖’으로 적은 것은 이들이 지니고 있던 원래 받침의 음운을 밝혀 적은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흙[흑]’과 ‘밖[박]’을 발음할 때(㉢)이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	㉡	㉢
①	흙글	바끝	‘흙[흑]’은 음운의 탈락, ‘밖[박]’은 음운의 교체
②	흐글	박글	‘흙[흑]’과 ‘밖[박]’ 모두 음운의 탈락
③	흙글	바끝	‘흙[흑]’과 ‘밖[박]’ 모두 음운의 교체
④	흙글	박글	‘흙[흑]’은 음운의 탈락, ‘밖[박]’은 음운의 교체
⑤	흐글	바끝	‘흙[흑]’은 음운의 교체, ‘밖[박]’은 음운의 탈락

7. EBSi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준 발음법]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눈보라 [눈 : 보라] 첫눈 [친눈] 멀리 [멀 : 리] 눈멀다 [눈멀다]
 밤나무 [밤 : 나무] 쌍동밤 [쌍동밤]

[붙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 보아 → 봐 [봐 :] 되어 → 돼 [돼 :] 두어 → 뒤 [뒤 :]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 감으니 [가므니] 밟으면 [발브면] 알아 [아라]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 감기다 [감기다] 꼬이다 [꼬이다] 밟히다 [발피다]

- ① 제6항에 따라 ‘함박눈’의 ‘눈’은 짧게 발음된다.
- ② 제6항에 따라 ‘밤나무[밤 : 나무]’의 ‘밤’과는 달리 ‘군밤’의 ‘밤’은 짧게 발음된다.
- ③ 제6항의 [붙임] 규정에 따라 ‘멈추어’의 축약형인 ‘멈춰’의 ‘춰’는 긴소리로 발음된다.
- ④ 제7항에 따라 ‘신다[신 : 따]’는 ‘신으니’, ‘신어’ 등의 활용에서 첫음절이 짧게 발음된다.
- ⑤ 제7항에 따라 ‘안다[안 : 따]’의 피동사인 ‘안기다’의 첫음절이 짧게 발음된다.

8. EBSi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음운의 동화 현상에서 ‘ㄹ’이 인접한 음운과 만날 때 다른 음을 동화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음운으로 동화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은)는 ‘ㄹ’이 동화를 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에 (㉡)(은)는 ‘ㄹ’이 동화되는 경우를 보여 주고 있다.

	㉠	㉡
①	신라 [실라]	물난리 [물랄리]
②	심리 [심니]	줄넘기 [줄럼기]
③	칼날 [칼랄]	음운론 [으문논]
④	불놀이 [불로리]	난로 [날 : 로]
⑤	침략 [침낙]	결단력 [결탄력]



음운의 변동

9. EBSi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ㅎ’은 인접한 음운과 만날 때 교체, 탈락, 축약의 현상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놓는 [논는]’에서는 음운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많아야 [마 : 나아]’에서는 음운의 탈락이, ‘많고 [만 : 코]’에서는 음운의 축약 현상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ㅎ’과 연관된 세 가지 음운 현상이 각각 포함된 다른 예를 모아 보자.

㉠

- ① 많은 [마 : 는], 묻히는 [무치는], 낳는 [난 : 는]
- ② 대답한 [대 : 다판], 앓던 [알던], 닿는 [단 : 는]
- ③ 급박한 [급빠칸], 놓지는 [노치는], 앓을 [아늘]
- ④ 따뜻한 [따뜨탄], 귀찮은 [귀차는], 닿기 [다 : 키]
- ⑤ 좋아 [조 : 아], 만형 [마텅], 역할 [여갈]

10. EBSi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의 유형을 모두 찾을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운 변동의 유형은 교체, 첨가, 탈락, 축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음운 변동은 단어 내에서 어느 하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경우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색연필 ㉡ 색년필 ㉢ [생년필]

- ① 물엿 [물련]
- ② 훌이불 [훈니불]
- ③ 식용유 [시공뉴]
- ④ 솔잎 [솔립]
- ⑤ 영업용 [영업농]

11. EBSi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국어에서는 예전에 모음 조화에 의한 모음 대립이 어휘의 생성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늡다 (낱다)’와 ‘늣다’의 분화에는 모음 조화가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는 양성 모음이고, ‘-’는 음성 모음이지요. 한 단어의 모음을 모음 조화에서 대립되는 다른 모음으로 바꿈으로써 단어를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더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단어 쌍들이 있습니다.

- ① 마리 -머리
- ② 걷다 -곧다
- ③ 얹다 -엷다
- ④ 늑다 -늑다
- ⑤ 폭르다 -프르다

12. EBSi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용언의 어간 받침이 비음이 아닌 경우에 어미 ‘-는’이 결합되면 어간의 끝소리가 비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을 보이는데 그 양상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비음으로의 교체만 일어나는 경우로 ‘닫는 [단는]’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받침의 대표음으로의 교체와 비음으로의 교체가 모두 일어나는 경우로 ‘숫는 [손는]’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접받침 중한 자음의 탈락과 비음으로의 교체가 모두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뵈는 [밤 : 는]’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접받침 중 한 자음의 탈락, 받침의 대표음으로의 교체, 비음으로의 교체가 모두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옴는 [음는]’이 이에 해당한다.

	㉠	㉡	㉢
①	젓는 [전 : 는]	쫓는 [쫘는]	굽는 [궁는]
②	잡는 [잠는]	맞는 [만는]	있는 [인는]
③	뿔는 [뵈는]	굳는 [군는]	늑는 [냥는]
④	먹는 [멍는]	깎는 [강는]	읽는 [잉는]
⑤	긋는 [근 : 는]	꽃는 [꼇는]	없는 [엄 : 는]



음운의 변동

13. EBSi <보기>의 (가)에 들어갈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단어 내에서 음운의 변동은 한 가지만 나타나지 않고 여러 유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 ‘넓적하다[넙쩌카다]’와 ‘삿일[상닐]’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 ① ‘넓적하다’는 ‘삿일’과 달리 음운의 축약 현상이 일어난다.
- ② ‘넓적하다’와 달리 ‘삿일’은 음운의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 ③ ‘넓적하다’와 ‘삿일’ 모두 음운의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 ④ ‘넓적하다’와 ‘삿일’ 모두 세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넓적하다’와 ‘삿일’ 모두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기 전보다 음운의 수가 줄어든다.

14. EBSi <보기>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모음과 단모음이 연속해서 배열되면 모음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려는 경향이 음운의 탈락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 ① 보- + -아서 → [봐 : 서]
- ② 크- + -어라 → [커라]
- ③ 치르- + -어 → [치러]
- ④ 건너- + -어 → [건 : 너]
- ⑤ 따- + -아도 → [따도]

[15~16] EBS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화는 하나의 음운이 인접한 음운과 만날 때 그것과 닮은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파열음인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동일한 조음 방식의 비음 ‘ㅇ, ㄴ, ㄹ’으로 바뀌는 동화 현상인 비음화를 살펴보자. 이때 ‘ㄱ, ㄷ, ㅂ’은 바뀌게 되는 음운이고 ‘ㄴ, ㄹ’ 앞은 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이 되며 동일한 조음 방식의 비음 ‘ㅇ, ㄴ, ㄹ’은 바뀌어 나온 음운이 된다.

동화는 동화의 방향, 동화의 정도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동화음은 동화가 일어나는 조건이고 피동화음은 동화 현상에서 바뀌게 되는 음운을 의미한다. 우선 동화의 방향에 따라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가 구분된다. 순행 동화는 동화음이 피동화음보다 앞에 있는 것이고 역행 동화는

동화음이 피동화음보다 뒤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돌나물[돌라물]’의 경우 동화음은 첫 번째 음절의 종성 ‘ㄴ’이고 피동화음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 ‘ㄴ’이므로 순행 동화에 속한다. 반면에 ‘국물[궁물]’의 경우 동화음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 ‘ㄱ’이고 피동화음은 첫 번째 음절의 종성 ‘ㄱ’으로 역행 동화에 속한다. 그리고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는 완전 동화와 부분 동화로 나눌 수 있다. 완전 동화는 피동화음이 동화음과 같아지는 것이고 부분 동화는 피동화음이 동화음의 일부 특성만 닮는 것이다. 이때 일부 특성이란 자음의 경우 조음 위치나 조음 방식 중 하나만 닮을 수 있고 모음의 경우 혀의 높낮이와 혀의 전후 위치, 입술의 모양 등 세 가지 분류 기준 중 일부만 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관람[괘람]’의 경우 피동화음인 첫 번째 음절의 초성 ‘ㄴ’이 동화 현상이 일어나 동화음인 두 번째 음절의 초성 ‘ㄴ’과 같아지므로 완전 동화에 속한다. 하지만 ‘같이[가치]’의 경우 동화음인 모음 ‘ㅣ’의 조음 위치에 피동화음인 자음 ‘ㅌ’이 동화되므로 부분 동화에 속한다.

15. 윗글에 따라 <보기>의 ㉠~㉣에 나타난 동화 현상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
| ㉠ 밥 먹는다[밤멍는다] | ㉡ 국민[궁민] | ㉢ 접는[점는] |
| ㉣ 듣는[든는] | ㉤ 막내[망내] | |

- ① ㉠을 보니 비음화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적용되기도 하는군.
- ② ㉠은 ㉡, ㉢, ㉣, ㉤과 달리 피동화음이 동화음의 뒤에 위치해 있군.
- ③ ㉡과 ㉤을 보니 피동화음은 ‘ㄱ’으로 동일하지만 동화음은 서로 다른 음운이군.
- ④ ㉢, ㉣, ㉤을 보니 동화음은 ‘ㄴ’으로 같지만 피동화음은 서로 다른 음운이군.
- ⑤ ㉠~㉤은 모두 동화음이 비음이고 피동화음이 파열음이라는 조음 방식의 공통점이 있군.

16. 윗글에 따라 <보기>의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
| ㉠ 겁내다 [검내다] | ㉡ 발놀림 [발롤림] | ㉢ 만머느리 [만머느리] |
| ㉣ 굳이 [구지] | ㉤ 불난리 [불랄리] | |

- ① ㉠은 역행 동화이자 부분 동화이겠군.
- ② ㉡는 순행 동화이자 완전 동화이겠군.
- ③ ㉢는 역행 동화이자 부분 동화이겠군.
- ④ ㉣는 순행 동화이자 부분 동화이겠군.
- ⑤ ㉤는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가 모두 일어나는군.



음운의 변동

17. EBSi <보기>의 ㉠~㉣을 참고하여 구개음화 현상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개음화는 ㉠자음 ‘ㄷ, ㅌ’이 ㉡ ‘ㅣ’나 반모음 ‘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날 때 각각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자음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ㄷ’과 ‘ㅎ’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ㅊ’이 되는 현상도 구개음화 현상으로 본다.

- ① ‘술이’의 ‘ㅌ’은 ㉠에 해당되고 ‘술이’의 ‘이’는 ㉡에 해당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나겠군.
② ‘끝을’의 ‘ㅌ’이 ㉠에 해당되고 ‘끝을’의 ‘을’은 ㉡에 해당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나겠군.
③ ‘굳히다’는 ㉢에 해당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나겠군.
④ ‘홀이불’의 ‘ㅌ’은 ㉠에 해당되지만 ‘홀이불’의 ‘이’는 ㉡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겠군.
⑤ ‘굳어’의 ‘ㄷ’은 ㉠에 해당되지만 ‘굳어’의 ‘어’는 ㉡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겠군.

18. EBSi <보기>를 참조할 때 밑줄 친 말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표준 발음법]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ㄷ, ㄷ, ㄷ),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ㅑ, ㅓ, ㅕ, ㅗ)’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5항 어간 받침 ‘ㅑ, ㅓ’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붙임]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① 형은 가방을 내게 맡기고 식당으로 달려갔다.
② 나는 친구가 말을 더듬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
③ 그는 여덟도 아닌 일곱이 되던 해에 천자문을 읽었다.
④ 종이 울리자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일시에 뛰어나갔다.
⑤ 형은 그만둘지언정 그 일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했다.

Step 2 연습문제

19. <보기>의 (가)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단어들 중에는 ‘길’, ‘굴’처럼 음운 하나의 차이로 인해 뜻이 변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표기는 같지만 소리가 달라 뜻이 변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습득물 신고’와 ‘신발을 신고’의 ‘신고’는 표기는 같지만 발음이 다릅니다. 각 단어의 뜻을 변별해 주는 음운의 예를 들어 봅시다.

학생: [(가)]

- ① “창은 총 앞에서 맥을 못 춘다.”에서 ‘창’과 ‘총’의 뜻을 변별해 주는 음운은 ‘ㅈ’와 ‘ㅊ’입니다.
- ② “여름철에는 물을, 겨울철에는 불을 조심해야 한다.”에서 ‘물’과 ‘불’의 뜻을 변별해 주는 음운은 ‘ㅁ’과 ‘ㅂ’입니다.
- ③ “큰 쥐 한 마리가 주변을 맴도는 것을 보니 머리가 지끈거렸다.”에서 ‘마리’와 ‘머리’의 뜻을 변별해 주는 음운은 ‘ㅌ’와 ‘ㄷ’입니다.
- ④ “오리를 키우는 마을에 들어서니 시끄러운 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다.”에서 ‘오리’와 ‘소리’의 뜻을 변별해 주는 음운은 ‘ㅇ’과 ‘ㅅ’입니다.
- ⑤ “시가(媿家)의 시부모님을 뵈러 갈 때 수박을 샀는데, 요즘 수박의 시가(時價)를 알게 되었다.”에서 앞의 ‘시가(媿家)’와 뒤의 ‘시가(時價)’의 뜻을 변별해 주는 음운은 ‘ㄱ’과 ‘ㄲ’입니다.



음운의 변동

20. 현대 국어 자음 체계의 일부인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10 • 1

조음 위치 ↓ 조음 방법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파열음			ㄱ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10 • 2
- | | |
|-----------------|---------------|
| ㉠ : 침략 → [침낙] | ㉡ : 쌀눈 → [쌀룬] |
| ㉢ : 신라 → [실라] | ㉣ : 국론 → [궁논] |
| ㉤ : 입원료 → [이뵤뇨] | |

- ① ㉠은 비음이 유음으로 바뀐 것이다.
- ② ㉡은 유음이 비음으로 바뀐 것이다.
- ③ ㉢은 ‘ㄹ’ 앞에 오는 ‘ㄴ’이 조음 위치가 바뀐 것이다.
- ④ ㉣은 ‘ㄹ’이 ‘ㄴ’으로 교체된 후 종성 ‘ㄱ’이 ‘ㄴ’과 같은 조음 위치의 음운으로 바뀐 것이다.
- ⑤ ㉤은 ‘입’의 ‘ㅍ’이 둘째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되고, ‘ㄴ’ 뒤에 오는 ‘ㄹ’의 조음 방법이 바뀐 것이다.

21. 음운 변동의 결과를 유형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운 변동 예시	음운 변동의 유형
①	짓는 → [진는]	교체
②	붓하고 → [부타고]	교체, 축약
③	넓고 → [널꼬]	탈락, 교체
④	외곶으로 → [외골쓰로]	탈락, 첨가
⑤	달다 → [달타]	축약

22. 다음은 국어의 음운 규칙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예시 자료로 옳은 것은?

음운 규칙	설 명	예시 자료
비음화	비음이 아닌 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이 된다.	㉠
비음 뒤의 된소리되기	용언 어간 말의 비음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가 예삿소리이면 된소리로 바뀐다.	㉡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중성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일 때 그중 하나는 탈락한다.	㉢

	㉠	㉡	㉢
①	국민[궁민]	보듬고[보듬꼬]	웁는[옴:는]
②	종로[중노]	앉자[안짜]	닿은[다른]
③	결단력[결탄녁]	서슴지[서슴찌]	끓느냐[굶:느냐]
④	듣는[든는]	봄비[봄삐]	값어치[가버치]
⑤	밤만[밤만]	껴안다[껴안따]	싫어서[시러서]



음운의 변동

23. 다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국어에는 ‘닭, 값, 여덟’과 같이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가 적지 않다. 이때 겹받침은 뒤에 오는 형태소의 종류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다.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하여 연음이 되면 겹받침이 모두 발음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거나 또는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중 겹받침의 하나가 탈락하는 음운 변동을 흔히 자음군 단순화라고 한다. 자음군 단순화의 예로는 (㉠) 등을 들 수 있다.

- ① ‘끓고’를 [끈코]로 발음하는 경우
- ② ‘싫은’을 [시른]으로 발음하는 경우
- ③ ‘안팎’을 [안팍]으로 발음하는 경우
- ④ ‘값없이’를 [가법씨]로 발음하는 경우
- ⑤ ‘넓히다’를 [넬피다]로 발음하는 경우

24. 다음 ㉠, ㉡의 예가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음과 자음이 결합하면 음운 변동이 잘 일어난다. 이때 흔히 일어나는 음운 변동으로 자음 동화를 들 수 있다. 자음 동화는 한 자음이 인접한 자음의 특성에 닮아 가는 음운 변동이다. 자음 동화는 ㉠앞 자음의 특성에 뒤 자음이 닮는 것과 ㉡뒤 자음의 특성에 앞 자음이 닮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	㉡
①	달+님 → [달림]	작+년 → [장년]
②	국+물 → [궁물]	칼+날 → [칼랄]
③	달+님 → [달림]	능+력 → [능녁]
④	국+물 → [궁물]	능+력 → [능녁]
⑤	권+리 → [켈리]	작+년 → [장년]

25. <보기>를 고려하여 단어의 표준 발음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41 •

■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의 표준 발음

-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에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 사이시옷 뒤에 ‘ㄴ,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ㄴ]으로 발음한다.
-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ㄴ]으로 발음하고 뒤의 ‘이’ 음에 [ㄴ]을 첨가하여 발음한다.

- ① ‘햇살’을 [헨쌀]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이다.
- ② ‘כות날’을 [콘날]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이다.
- ③ ‘들갯잎’을 [들개닙]으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이다.
- ④ ‘뱃머리’를 [벤머리]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이다.
- ⑤ ‘고갯짓’을 [고개짚]으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이다.

26. <보기 1>의 ㉠,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만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 41 • 1

음운 변동 현상의 여러 유형은 자음과 모음에서 두루 살펴볼 수 있는데, ‘살 + 는 → [사 : 는]’ 은 자음이 탈락한 예이고 ‘쓰 + 어 → [씨어]’는 모음이 탈락한 예이다. 한편, 자음의 축약과 ㉠ 모음의 축약, ㉡ 자음의 첨가와 모음의 첨가 등도 실제 사용하는 표현을 통해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화 → [구과]’는 자음이 축약된 것이고 ‘아니 + 오 → [아니오]’는 반모음이 첨가된 예이다.

• 41 • 2

	㉠	㉡
(가)	피 + 어 → [피어]	설 + 날 → [설랄]
(나)	쏘이 + 어 → [씨어]	꽃 + 잎 → [꼇닙]
(다)	누이 + 어 → [늬어]	물 + 약 → [물락]
(라)	나서 + 어 → [나서]	밥 + 물 → [밤물]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나), (라)
- ⑤ (다), (라)



음운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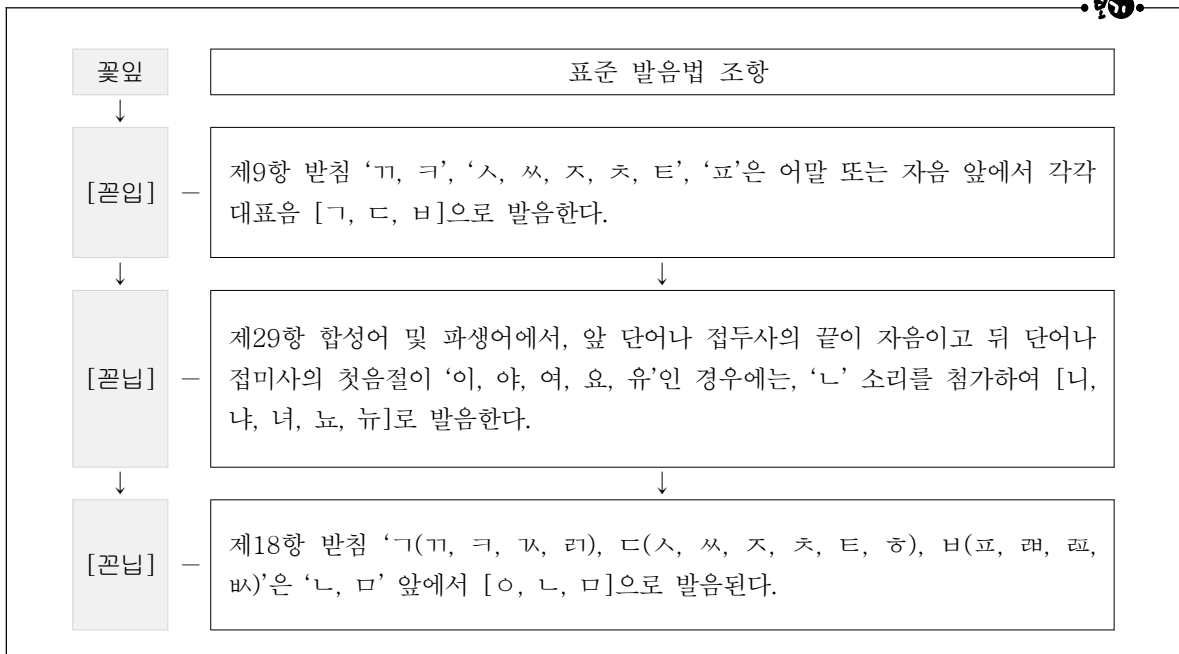
27.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가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한글

단모음이 나란히 놓이면 이것을 막기 위한 음운 변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 단모음 중 하나가 탈락하기도 하고, ㉡ 단모음 중 하나가 반모음으로 바뀌기도 하며, ㉢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	㉡	㉢
①	크 + 어 → [커]	이기 + 어 → [이겨]	뛰 + 어 → [뛰여]
②	크 + 어 → [커]	세우 + 어 → [세워]	꾸 + 어 → [꾸:]
③	피 + 어 → [피여]	이기 + 어 → [이겨]	서 + 어 → [서]
④	서 + 어 → [서]	나가 + 아 → [나가]	뛰 + 어 → [뛰여]
⑤	피 + 어 → [피여]	나가 + 아 → [나가]	꾸 + 어 → [꾸:]

28. <보기>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발음되는 단어는?



- | | |
|------------|------------|
| ① 못난이[몬나니] | ② 부엌문[부엌문] |
| ③ 색연필[생년필] | ④ 옷맵시[온맷씨] |
| ⑤ 훌이불[훈니불] | |

29. 다음을 바탕으로 음운의 탈락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형이 <u>조니</u> 동생도 <u>줄고</u> 있다. 용돈이 <u>주니</u> 몸무게도 <u>줄고</u> 있다.
㉡	이제 밤이 늦었으니 텔레비전도 <u>끄고</u> 불도 <u>꺼!</u> 아침에는 배가 <u>아프고</u> 저녁에는 머리가 <u>아파</u> .
㉢	광에 연탄도 <u>쌓고</u> 쌀도 <u>쌓아</u> 놓으니 마음이 뿌듯하다. 오늘 우리 집 소가 송아지를 <u>낳고</u> 개도 강아지를 <u>낳아</u> 기분이 좋다.
㉣	오늘은 우리 집에서 <u>자고</u> 내일은 형님 집에서 <u>잔</u> . 네가 <u>가고</u> 나니 이제야 네가 한 행동이 이해가 <u>간</u> .

- ① ㉠을 보니, 어간의 끝소리 ‘ㄹ’은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는군.
- ② ㉡을 보니, 어간의 모음은 음성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만 탈락되는군.
- ③ ㉢을 보니, ‘쌓아[싸아]’와 ‘낳아[나아]’에서 일어난 음운 탈락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군.
- ④ ㉣을 보니, 어간의 모음과 동일한 모음이 연결될 경우에는 그중 한 음운이 탈락되는군.
- ⑤ ㉠~㉣을 보니, 어간이 어미 ‘-고’와 결합할 때에는 음운의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군.

30. ㉠~㉣에서의 잘못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김치를 많이 ㉠담겨 이웃과 나눠 먹었다.
- 누가 우리 귀한 아들을 ㉡나무래?
- 꼭 가 보고 ㉢싫다만은 그럴 여유가 없구나.
- 이번에는 정말 시험을 잘 ㉣치뤘 대학의 꿈을 이루어 보자.
- 이 부분은 같은 간격으로 ㉤떠어 쓰는 것이 좋겠다.

- ① ㉠ : ‘담겨’는 ‘담구-’와 ‘-어’의 결합에서 모음 ‘ㅏ’와 ‘ㅑ’가 축약된 것으로 ‘담귀’로 써야 한다.
- ② ㉡ : ‘나무래’는 ‘나무라-’와 ‘-아’의 결합에서 어간의 끝 모음이 탈락한 것이므로 ‘나무라’로 써야 한다.
- ③ ㉢ : ‘만은’은 역접의 의미가 없으므로 그러한 의미를 갖는 ‘마는’이나 ‘만’으로 써야 한다.
- ④ ㉣ : ‘치뤘’는 ‘치르다’의 어간 ‘치르-’에 어미 ‘어’와 결합하면, ‘-’가 탈락하여 ‘치러’로 써야 한다.
- ⑤ ㉤ : ‘떠어’는 ‘뜨이어’의 준말이므로 ‘띄어’로 써야 한다.

정답 및 해설

- 1) **답 ③ [음운의 이해]** 현대 국어 음운에 속하는 이중 모음의 발음 원리에 대한 설명이지 ㉔의 예가 아니다. ㉔의 예로는 ·(아래아)의 소멸에 따른 음운 체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㉑**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는 자음과 모음이며, 여기에서는 모음 ‘ㅣ’와 ‘ㅏ’에 의해 의미가 변별되고 있으므로 ‘ㅣ’와 ‘ㅏ’가 음운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영어와 달리 우리말의 음운 체계에서는 ‘ㅣ’과 ‘ㅣ’가 하나의 음운으로 인식되는 예로 언어에 따라 음운 체계가 다를 수 있다. ④ 분절되지 않는 말소리 요소인 소리의 장단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예로 비분절적이지만 소리의 장단도 음운으로 기능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⑤ 음성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이지만, 음운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의 단위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 2) **답 ① [음운 변동 이해, 적용]** ㉑은 ‘ㄹ’ 탈락이, ㉒은 ‘ㅇ’ 탈락이 일어난다. **㉑** ② ㉑과 ㉒ 모두 ‘ㅎ’ 탈락이 일어난다. ③ ㉑과 ㉒ 모두 ‘ㅇ’ 탈락이 일어난다. ④ ㉑은 ‘ㅇ’ 탈락이, ㉒은 ‘ㅎ’ 탈락이 일어난다. ⑤ ㉑은 ‘ㅎ’ 탈락이, ㉒은 ‘ㄹ’ 탈락이 일어난다.
- 3) **답 ④ [음운 변동 이해, 적용]** ㉔은 거센소리되기 현상(축약어), ㉑은 자음군 단순화(탈락)와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㉑** ① ㉑의 ‘낱 [남]’과 ‘긋 [곤]’, ㉒의 ‘뉘 [뉴]’와 ‘있 [임]’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② ㉒은 ‘익하다 → [이키다]’와 ‘긋하다 → 곤하다 → [구타다]’에서 거센소리되기를 확인할 수 있다. ㉔은 ‘맑고 [만 :코]’에서 ‘ㅎ + ㅏ → ㅑ’, ‘얹지[알치]’에서 ‘ㅎ + ㅗ → ㅛ’의 거센소리되기를 확인할 수 있다. ③ ㉒의 ‘뉘는 → 낱는 → [남는]’에서 파열음 ‘ㄱ’이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인 ‘ㅇ’으로 바뀌는 동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고, ‘있는 → 인는 → [인는]’에서 파열음 ‘ㄷ’이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비음인 ‘ㄴ’으로 바뀌는 동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㉔의 ‘닭만 → 닭만 → [당만]’에서 파열음 ‘ㄱ’이 비음 ‘ㅇ’의 영향을 받아 같은 비음인 ‘ㅇ’으로 바뀌는 동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고, ‘값나가는 → 값나가는 → [값나가는]’에서 파열음 ‘ㅂ’이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같은 비음인 ‘ㅇ’으로 바뀌는 동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⑤ ㉔의 ‘닭만 → 닭만 → [당만]’에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음운탈락 현상이 일어나 ‘ㄹ’의 탈락을 확인할 수 있고, ‘값나가는 → 값나가는 → [값나가는]’에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음운 탈락 현상이 일어나 ‘ㅅ’의 탈락을 확인할 수 있다. ㉔의 ‘뫼도 → [목또]’에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음운 탈락 현상이 일어나 ‘ㅅ’의 탈락을 확인할 수 있고, ‘넓지 → [널찌]’에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음운 탈락 현상이 일어나 ‘ㅂ’의 탈락을 확인할 수 있다.
- 4) **답 ④ [음운 변동 이해, 적용]** ‘흙냄새 → 흑냄새’에서는 겹받침 중 ‘ㄹ’이 탈락하는(㉔) 음운변동이 발생하며, ‘흑냄새 → [흑냄새]’에서는 ‘ㄱ’이 ‘ㅇ’으로 교체되는(㉑) 음운 변동이 발생한다. **㉑** ① ‘겉모습 → 겹모습’에서는 ‘ㅌ’이 ‘ㄷ’으로 교체되는(㉑) 음운 변동이 발생하며, ‘겉모습 → [건모습]’에서도 ‘ㄷ’이 ‘ㄴ’으로 교체되는(㉑) 음운 변동이 발생한다. ② ‘땃하다 → 탈하다’에서는 ‘ㅅ’이 ‘ㄷ’으로 교체되는(㉑) 음운 변동이 발생하며, ‘탈하다 → [타타다]’에서는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는(㉔) 음운 변동이 발생한다. ③ ‘색연필 → 색년필’에서는 ‘ㄴ’이 첨가되는(㉑) 음운 변동이 발생하며, ‘색년필 → [생년필]’에서는 ‘ㄱ’이 ‘ㅇ’으로 교체되는(㉑) 음운 변동이 발생한다. ⑤ ‘값하다 → 갑하다’에서는 겹받침 중 ‘ㅅ’이 탈락하는(㉔) 음운변동이 발생하며, ‘갑하다 → [가파다]’에서는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축약되는(㉔) 음운 변동이 발생한다.
- 5) **답 ④ [음운의 개념, 특성 파악]** ‘ㄱ’에서 ‘ㄴ’로 발음을 바꾸려면 입술의 모양을 평순으로 하고 혀의 최고점 위치를 뒤쪽에 그대로 유지한 채 혀의 최고점의 높이를 높이면 된다. **㉑**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혀의 높이를 낮추면 된다. 이때 자연스럽게 입은 크게 벌어진다. ② 두 모음의 차이점은 혀의 전후 위치이다. 전설 모음인 ‘ㄱ’과 후설 모음인 ‘ㄱ’이므로 혀의 최고점을 뒤쪽으로 옮기면 된다. ③ 두 모음의 차이는 혀의 전후 위치이다. ‘ㄱ’이 후설 모음이고 ‘ㄱ’이 전설 모음이므로 혀의 최고점을 앞으로 옮겨 가면 된다. ⑤ ‘ㄱ’과 ‘ㄴ’ 모두 원순 모음이므로 입술을 둥그렇게 유지한 채 혀의 최고점의 높이를 조절하면 된다.
- 6) **답 ① [음운 변동 이해, 적용]**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결합해 보면 겹받침은 원래 두 개의 음운임을 알 수 있다. 즉, ‘흙을[흙글]’에서 겹받침 ‘ㄹ’이 ‘ㄹ’과 ‘ㄱ’이라는 두 개의 음운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뫼을[바글]’에서 쌍받침 ‘ㄱ’이 원래 받침의 음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흙[흑]’은 두 개의 음운 중 ‘ㄹ’이 탈락한 것이고, ‘뫼[박]’은 ‘ㄱ’에서 ‘ㄱ’으로 음운이 교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7) **답 ③ [음운의 개념, 특성 파악]** ‘뫼추다’는 용언의 어간이 ‘뫼추-’로 2음절이므로 제6항의 [붙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㉑**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합박는 [합방는]’처럼 세 번째 음절에서는 긴소리가 나타날 수 없다. ② ‘밤나무 [밤 :나무]’의 ‘밤’은 단어의 첫음절이므로 긴소리가 나타나지만 ‘군밤’의 ‘밤’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짧게 발음된다. ④ 단음절인 어간 ‘신-’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하고 있으므로 제7항의 1 규정에 따라 짧게 발음이 된다. ⑤ ‘안다 [안 :따]’에 피동사의 접미사 ‘-기-’가 결합한 피동사 ‘안기다’는 제7항의 2 규정에 따라 짧게 발음이 된다.
- 8) **답 ③ [음운 변동의 이해, 적용]** ③ ‘갑날 [갑탈]’은 앞 음절의 ‘ㄹ’이 뒤 음절의 ‘ㄴ’을 동화시킨다. ‘음운론 [음 :론]’은 세 번째 음절의 ‘ㄹ’이 두 번째 음절의 ‘ㄴ’에 동화되고 있다. **㉑** ① ‘신라[실라]’는 뒤 음절의 ‘ㄹ’이 앞 음절

의 ‘ㄴ’을 동화시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다. 그러나 ‘물난리[물랄리]’는 첫 번째 음절의 ‘ㄹ’이 두 번째 음절의 첫소리 ‘ㄴ’을 동화시키고, 세 번째 음절의 ‘ㄹ’이 두 번째 음절의 끝소리 ‘ㄴ’을 동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 예보다는 오히려 ㉠의 예로 적절하다. ② ‘심리[심니]’는 두 번째 음절의 ‘ㄹ’이 첫 번째 음절의 ‘ㄹ’에 의해 동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다. ‘줄넘기[줄림끼]’는 첫 번째 음절의 ‘ㄹ’이 두 번째 음절의 ‘ㄴ’을 동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다. ④ ‘볼놀이[볼로리]’는 첫 번째 음절의 ‘ㄹ’이 두 번째 음절의 ‘ㄴ’을 동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다. 두 번째 음절의 ‘ㄹ’은 세 번째 음절로 연음된 것이지 동화가 아니다. ‘난로[날:로]’는 두 번째 음절의 ‘ㄹ’이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ㄴ’을 동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다. ⑤ ‘침략[침낙]’은 뒤 음절의 ‘ㄹ’이 앞 음절의 ‘ㄹ’에 의해 동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다. 마찬가지로 ‘결단력[결판녁]’은 세 번째 음절의 ‘ㄹ’이 두 번째 음절의 ‘ㄴ’에 의해 동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다.

9) **답 ① [음운 변동 이해, 적용]** ‘많은[마:는]’은 음운의 탈락, ‘물히는[무치는]’은 ‘무티는’으로 축약이 일어난 후에 구개음화로 인해 ‘[무치는]’으로 음운의 교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낱는[난:는]’은 ‘낱는’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한 교체가 일어난 후에 ‘[난:는]’으로 비음화에 의한 음운의 교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답 ②** ‘대답한[대:다판]’, ‘알던[알턴]’은 음운의 축약 현상이 일어나고, ‘달는[단:는]’은 ‘달는’으로 교체가 일어난 후에 ‘[단:는]’으로 음운의 교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③ ‘급박한[급빠간]’, ‘놓치는[노치는]’의 ‘ㅎ’과 관련해서는 음운의 축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알을[아늘]’의 ‘ㅎ’과 관련해서는 음운의 탈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④ ‘따뜻한[따뜨탄]’은 ‘따뜨한’으로 음운의 교체가 일어난 후에 ‘[따뜨탄]’으로 음운의 축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달기[다:키]’는 음운의 축약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귀찮은[귀차는]’은 음운의 탈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⑤ ‘좋아[조:아]’는 음운의 탈락 현상, ‘만형[마형]’과 ‘역할[여갈]’은 음운의 축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10) **답 ③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은 음운의 첨가(‘ㄴ’ 첨가), ㉡은 음운의 교체(비음화)(ㄱ → 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식용유[시공뉴]’에서는 ‘ㄴ’ 첨가만 일어나기 때문에 ㉠의 음운 변동은 일어나지만 ㉡의 음운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답 ①** ‘물엿 → 물녘 → [물뉘]’은 ‘ㄴ’ 첨가와 유음화에 따른 음운의 교체(ㄴ → ㄹ),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한 음운의 교체(ㅅ → ㄷ)가 일어나고 있다. ② ‘홀이불 → 홀니불 → [홀니불]’은 둘째 음절 첫소리의 ‘ㄴ’ 첨가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른 음운의 교체(ㅌ → ㄷ), 비음화에 따른 음운의 교체(ㄷ → ㄴ)가 일어나고 있다. ④ ‘솔잎 → 솔님 → [솔림]’은 ‘ㄴ’ 첨가와 유음화에 따른 음운의 교체(ㄷ → ㄹ),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른 음운의 교체(ㅍ → ㅂ)가 일어나고 있다. ⑤ ‘영업용 → 영업봉 → [영업뉘]’은 셋째 음절 첫소리의 ‘ㄴ’ 첨가와 비음화에 따른 음운의 교체(ㅂ → ㄹ)가 일어나고 있다.

11) **답 ② [국어의 변천]** ‘걸다’와 ‘꼴다’의 ‘ㄱ’는 음성 모음이고 ‘고’는 양성 모음이지만 서로 대립하는 모음이 아니다. ‘ㄱ’는 ‘ㄱ’와, ‘고’는 ‘구’와 대립한다. 따라서 모음 대립을 통해 어휘가 분화된 예로 보기 어렵다. **답 ①** ‘마리’와 ‘머리’의 ‘ㄱ’과 ‘ㄱ’는 서로 대립하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에 해당한다. ③ ‘얇다’와 ‘엷다’의 ‘ㅍ’와 ‘ㅍ’는 서로 대립하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에 해당한다. ④ ‘눅다’와 ‘눅다’의 ‘ㄴ’과 ‘ㄴ’는 서로 대립하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에 해당한다. ⑤ ‘프르다’와 ‘프르다’의 ‘ㅍ’와 ‘ㅍ’는 서로 대립하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에 해당한다.

12) **답 ④ [음운 변동 이해, 적용]** ‘먹는[멍는]’은 비음으로의 교체만 일어나는 예로 ㉠에 해당한다. ‘깎는 → 깎는 → [깡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른 받침의 대표음으로의 교체와 비음으로의 교체가 일어나므로 ㉡에 해당한다. ‘읽는 → 익는 → [잉는]’은 자음군 단순화에 따른 음운의 탈락과 비음으로의 교체가 일어나므로 ㉡에 해당한다. **답 ①** ‘젓는 → 짚는 → [전: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른 받침의 대표음으로의 교체와 비음으로의 교체가 일어나므로 ㉡에 해당한다. ‘쫓는 → 쫓는 → [쫘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른 받침의 대표음으로의 교체와 비음으로의 교체가 일어나므로 ㉡에 해당한다. ② ‘잡는[잡는]’은 비음으로의 교체만 일어나는 예로 ㉠에 해당한다. ‘맞는 → 만는 → [만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른 받침의 대표음으로의 교체와 비음으로의 교체가 일어나므로 ㉡에 해당한다. ‘있는 → 인는 → [인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른 받침의 대표음으로의 교체와 비음으로의 교체가 일어나므로 ㉡에 해당한다. ③ ‘뿔는[뿔는]’은 비음으로의 교체만 일어나는 예로 ㉠에 해당한다. ‘굳는[굳는]’은 비음으로의 교체와 비음으로의 교체가 일어나므로 ㉡에 해당한다. ⑤ ‘긋는 → 긋는 → [근: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른 받침의 대표음으로의 교체와 비음으로의 교체가 일어나므로 ㉡에 해당한다. ‘꽃는 → 꼷는 → [꼷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른 받침의 대표음으로의 교체와 비음으로의 교체가 일어나므로 ㉡에 해당한다. ‘없는 → 업는 → [업:는]’은 자음군 단순화에 따른 음운의 탈락과 비음으로의 교체가 일어나므로 ㉡에 해당한다.

13) **답 ⑤ [음운 변동 이해, 적용]** ‘넓적하다[넙적카다]’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전 음운의 수가 11개이지만 탈락과 축약이 일어났으므로 음운 변동 후 음운의 수는 9개이다. 반면에 ‘삿일[삿닐]’은 음운의 탈락이 일어났지만 첨가도 일어나므로 전체 음운의 개수는 6개로 음운 변동 전과 변화가 없다. **답 ①** ‘넓적하다’는 ‘ㄱ’과 ‘ㅎ’이 합쳐져 ‘ㅋ’이 되는 축약이 일어나지만 ‘삿일’에서는 축약이 일어나지 않는다. ② ‘삿일’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나지만 ‘넓적하다’는 음운의 첨가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③ ‘넓적하다’는 ‘ㄹ’의 탈락이 일어나고 ‘삿일’은 ‘ㅅ’의 탈락이 일어난다. ④ ‘넓적하다’는 음운의 탈락(‘ㄹ’ 탈락), 교체(원소리되기), 축약(ㄱ + ㅎ → ㅋ)이 일어난다. ‘삿일’은 첨가(‘ㄴ’ 첨



음운의 변동

가), 음운의 탈락(‘ㅅ’ 탈락), 교체(비음화)가 일어난다.

14) **답 ① [음운의 개념, 특성 파악]** ‘보- + -아서 → [봐 : 서]’는 음운의 탈락이 아니라 ‘ㄹ’과 ‘ㅍ’가 반모음 ‘w’와 ‘ㅍ’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㉞ ②** 단모음 ‘-’와 단모음 ‘ㅍ’의 충돌을 피하려는 경향이 ‘-’의 탈락을 불러일으켰다. **③** 단모음 ‘-’와 단모음 ‘ㅍ’의 충돌을 피하려는 경향이 ‘-’의 탈락을 불러일으켰다. **④** 단모음 ‘ㅍ’와 단모음 ‘ㅍ’의 충돌을 피하려는 경향이 ‘ㅍ’의 탈락을 불러일으켰다. **⑤** 단모음 ‘ㅍ’와 단모음 ‘ㅍ’의 충돌을 피하려는 경향이 ‘ㅍ’의 탈락을 불러일으켰다.

15) **답 ② [음운 변동 이해, 적용]** ㉞의 ‘밥 먹는다[밤멍는다]’에서 첫 번째 음절의 종성 ‘ㅂ’은 피동화음이고 두 번째 음절의 초성 ‘ㅂ’은 동화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음절의 종성 ‘ㄱ’은 피동화음, 세 번째 음절의 초성 ‘ㄴ’은 동화음이다. 그러므로 ㉞도 ㉞, ㉞, ㉞, ㉞처럼 피동화음이 동화음의 앞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㉞ ①** ㉞의 ‘밥’과 ‘먹는다’는 별개의 단어인데 ‘밥’의 종성인 ‘ㅂ’과 ‘먹’의 초성인 ‘ㄹ’ 사이에서 비음화가 일어나 ‘밥’의 종성 ‘ㅂ’이 비음 ‘ㅂ’으로 동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㉞에 해당하는 ‘국민[궁민]’의 피동화음은 ‘ㄱ’의 종성인 파열음 ‘ㄱ’이고 동화음은 ‘민’의 초성인 ‘ㄹ’이다. ㉞에 해당하는 ‘막내[망내]’의 피동화음은 ‘ㅍ’의 종성인 파열음 ‘ㄱ’이고 동화음은 ‘내’의 초성인 ‘ㄴ’이다. 그러므로 ㉞과 ㉞은 피동화음은 같지만 동화음은 각각 ‘ㄹ’, ‘ㄴ’으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④** ㉞에 해당하는 ‘접는[젹는]’의 피동화음은 ‘ㅍ’의 종성인 파열음 ‘ㅂ’이고 동화음은 ‘는’의 초성인 ‘ㄴ’이다. ㉞에 해당하는 ‘듣는[든는]’의 피동화음은 ‘ㄷ’의 종성인 파열음 ‘ㄷ’이고 동화음은 ‘는’의 초성인 ‘ㄴ’이다. ㉞에 해당하는 ‘막내[망내]’의 피동화음은 ‘ㅍ’의 종성인 ‘ㄱ’이고 동화음은 ‘내’의 초성인 ‘ㄴ’이다. 그러므로 ㉞, ㉞, ㉞의 동화음은 모두 ‘ㄴ’으로 동일하지만 피동화음은 ㉞이 ‘ㅂ’, ㉞이 ‘ㄷ’, ㉞이 ‘ㄱ’으로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⑤** ㉞에 해당하는 ‘밥 먹는다[밤멍는다]’의 동화음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 ‘ㄹ’과 세 번째 음절의 초성 ‘ㄴ’으로 모두 비음이다. 피동화음은 첫 번째 음절의 종성 ‘ㅂ’, 두 번째 음절의 종성 ‘ㄱ’으로 모두 파열음이다. ㉞에 해당하는 ‘국민[궁민]’의 동화음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 ‘ㄹ’으로 비음이고 피동화음은 첫 번째 음절의 종성 ‘ㄱ’으로 파열음이다. ㉞에 해당하는 ‘접는[젹는]’의 동화음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 ‘ㄴ’으로 비음이고 피동화음은 첫 번째 음절의 종성 ‘ㅂ’으로 파열음이다. ㉞에 해당하는 ‘듣는[든는]’의 동화음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 ‘ㄴ’으로 비음이고 피동화음은 첫 번째 음절의 종성 ‘ㄷ’으로 파열음이다. ㉞에 해당하는 ‘막내[망내]’의 동화음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 ‘ㄴ’으로 비음이고 피동화음은 첫 번째 음절의 종성 ‘ㄱ’으로 파열음이다. 이렇듯 ㉞~㉞은 모두 동화음이 비음이고 피동화음이 파열음을 알 수 있다.

16) **답 ④ [음운 변동 이해, 적용]** ㉞에 해당하는 ‘굳이[구지]’는 ‘ㄷ’이 뒤에 위치한 ‘ㅣ’모음의 영향으로 ‘ㅣ’모음과 조음 위치가 닮은 구개음 ‘ㅈ’으로 변하는 동화현상이다. 그러므로 동화의 방향으로 볼 때는 역행 동화이고 조음위치라는 음운의 일부 특성만 닮게 되었으므로 부분 동화이다. **㉞ ①** ㉞에 해당하는 ‘겁내다[검내다]’는 동화음이 두 번째 음절의 초성 ‘ㄴ’이고 피동화음이 첫 번째 음절의 종성 ‘ㅂ’이므로 역행 동화이다. 그리고 피동화음인 ‘ㅂ’이 동화음인 비음 ‘ㄴ’의 조음 방식만 닮아 비음 ‘ㅂ’으로 동화되므로 부분 동화이다. **②** ㉞에 해당하는 ‘발놀림[발롤림]’은 동화음이 첫 번째 음절의 종성 ‘ㄹ’이고 피동화음이 두 번째 음절의 초성 ‘ㄴ’이므로 동화의 방향으로 보면 순행 동화이다. 그리고 피동화음인 두 번째 음절의 초성 ‘ㄴ’이 동화음인 첫 번째 음절의 종성 ‘ㄹ’과 같아지므로 완전 동화이다. **③** ㉞에 해당하는 ‘만머느리[만며느리]’는 동화음이 두 번째 음절의 초성 ‘ㄹ’이고 피동화음인 첫 번째 음절의 종성 ‘ㄷ’이므로 역행동화이다. 그리고 피동화음인 ‘ㄷ’이 동화음인 비음 ‘ㄹ’의 조음 방식만 닮아 비음 ‘ㄴ’으로 동화되므로 부분 동화이다. **⑤** ㉞에 해당하는 ‘불난리[불랄리]’를 보면 동화음이 첫 번째 음절의 종성인 ‘ㄹ’이고 피동화음이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인 ‘ㄴ’인 부분에서는 순행 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동화음이 세 번째 음절의 초성 ‘ㄹ’이고 피동화음이 두 번째 음절의 종성 ‘ㄴ’인 부분에서는 역행 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동화의 정도로 보면 모두 피동화음인 ‘ㄴ’이 동화음인 ‘ㄹ’과 같아지므로 완전 동화이다.

17) **답 ② [음운 변동 이해, 적용]** ‘끝을’의 ‘ㅌ’이 ㉞에 해당되지만 ‘끝을’의 ‘을’이 ㉞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㉞ ①** 받침 ‘ㅌ’이 형식 형태소 ‘ㅣ’와 만나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즉 ㉞과 ㉞ 모두에 해당하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 [소치]로 발음된다. **③** 자음 ‘ㄷ’ 뒤에 사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것이므로 ㉞의 예에 해당한다. **④** ‘홀이불’의 첫째 음절의 어말 자음 ‘ㅌ’에 실질 형태소 ‘이불’이 결합하였다. 구개음화의 요소 중 ㉞에는 해당되지만 ㉞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⑤** ‘굳어[구더]’는 받침 ‘ㄷ’에 어미 ‘-어’가 결합한 형태로 구개음화의 요소 중 ㉞에는 해당되지만 ㉞에 해당되지 않는다.

18) **답 ③ [음운 변동 이해, 적용]** <보기>의 제25항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의 발음과 관련된 조항이다. **③** ‘여덟도’는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표준 발음은 [여덟도]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여덟도’는 제23항의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덟’의 발음이 [여덟]이 아니라 [여덟]이기 때문이다. **㉞ ①** ‘말기고’는 [말끼고]로 발음되는데 이는 <보기>의 제23항에 따라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결과이다. **②** ‘더듬지’는 [더듬찌]로 발음되는데 이는 <보기>의 제24항에 따라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결과이다. **④** ‘일시에’는 [일씨에]로 발음되는데 이는 <보기>의 제26항에 따라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결과이다. **⑤** ‘그만둘지언정’은 [그만둘찌언정]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보기>의 제27항의 [붙임]에 따라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결과이다.

19) **답 ④ [음운의 개념, 특성 파악]** ‘강’과 같은 단어의 종성으로 쓰인 ‘ㅇ’은 음가가 있지만 우리말 초성 자리에 표기된 ‘ㅇ’은 음가가 없다. ‘오리’와 ‘소리’라는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이유는 ‘오’에는 초성이 안 쓰였지만 ‘소’에는 초

성 ‘ㅅ’이 쓰였기 때문이다. 즉, 자음 ‘ㅇ’과 ‘ㅅ’의 차이 때문이 아니므로 ④는 적절한 예가 아니다. ㉠ ① ‘창’과 ‘총’의 뜻을 변별해 주는 음운은 모음인 ‘ㅏ’와 ‘ㅑ’이므로 적절한 예이다. ② ‘물’과 ‘불’의 뜻을 변별해 주는 음운은 자음인 ‘ㅁ’과 ‘ㅂ’이므로 적절한 예이다. ③ ‘마리’와 ‘머리’의 뜻을 변별해 주는 음운은 모음인 ‘ㅏ’와 ‘ㅑ’이므로 적절한 예이다. ⑤ 시집을 뜻하는 ‘시가(媿家)[시가]’와 일정한 시기의 물건값을 뜻하는 ‘시가(時價)[시까]’의 뜻을 변별해 주는 음운은 자음인 ‘ㄱ’과 ‘ㅋ’이므로 적절한 예이다.

20) ㉡ ⑤ [음운 변동 이해] ㉠ ‘입원료 → [이뵤료]’에서 ‘료’가 [료]로 발음되는 것은 비음 ‘ㄴ’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조음 방법이 바뀐 것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① ‘침략 → [침낙]’은 유음이 비음으로 바뀐 것이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② ㉢ ‘쌀눈 → [쌀룬]’은 비음이 유음으로 바뀐 것이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③ ㉣ ‘신라 → [실라]’는 ‘ㄹ’ 앞에 오는 ‘ㄴ’이 조음 방법이 바뀐 것이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④ ㉤ ‘국론 → [궁론]’은 ‘국론 → [궁론]’으로 ‘ㄹ’이 ‘ㄴ’으로 교체된 후 [국논] → [궁논]으로 ‘ㄱ’이 ‘ㄴ’과 조음 방법이 같은 음운 ‘ㅇ’으로 바뀐 것이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21) ㉡ ④ [음운 변동 이해] ‘외곶으로’가 [외골쓰로]가 될 때에 탈락이나 첨가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 ① ‘짓는’은 [진는]이 될 때 교체가 일어나고 [진는]이 될 때도 교체가 일어나므로 적절하게 정리한 것이다. ② ‘붓하고’는 [붓하고]가 될 때 교체가 일어나고 [부타고]가 될 때 축약이 일어나므로 적절하게 정리한 것이다. ③ ‘넙고’는 [넙고]가 될 때 탈락이 일어나고 [넙꼬]가 될 때 교체가 일어나므로 적절하게 정리한 것이다. ⑤ ‘닿다’는 [달타]가 될 때 축약이 일어나므로 적절하게 정리한 것이다.

22) ㉡ ① [음운 변동 이해] ‘국’의 비음이 아닌 ‘ㄱ’이 비음인 ‘민’의 ‘ㅁ’을 만나 비음인 ‘ㅇ’이 되므로 ㉢의 예로 적절하고, ‘보듬고’는 ‘보듬다’의 어간 ‘보듬-’의 끝소리가 비음인 ‘ㅁ’ 뒤에 어미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므로 ㉣의 예시 자료로 적절하다. 또한 ‘옴는’은 어간 끝소리가 겹자음인데 뒤에 자음의 환경에서 하나의 음운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의 예로 적절하다. ㉣ ② ‘종로’는 ‘비음이 아닌 음이 비음 앞에서’가 아닌 ‘비음 뒤에서’ 비음이 되는 경우이다. ‘얹자’는 용언 어간 끝소리가 ‘ㅈ’이므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닿은’은 뒤에 오는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이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아닌 ‘ㅎ’탈락이다. ⑤ ㉠과 ㉢은 적절한 예시이나 ㉣은 ②의 ‘닿은’처럼 자음군 단순화가 아닌 ‘ㅎ’탈락이다.

23) ㉡ ④ [자음군 단순화의 이해] ‘값없이’의 ‘값’이 [갑]으로 발음되는 것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서 ‘값’에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다. ㉣ ① ‘꿍고’를 [곤코]로 발음하는 것은 ‘ㅎ’과 ‘ㄱ’이 [ㅋ]으로 축약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② ‘싫은’에서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고 있다. 설명에 따르면 자음군 단순화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형태소 앞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다. ‘싫은’이 [시룬]으로 발음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ㅎ’ 탈락이 적용된 것이다. ③ ‘안팎’에는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가 없으므로 자음군 단순화의 적용과 무관하다. 참고로 ‘안팎’의 ‘ㅁ’은 하나의 자음에 불과하므로 ‘ㄱ’이 [ㄱ]으로 발음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것이 아니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것이다. ⑤ ‘넙히다’에서는 앞에 오는 ‘ㅂ’과 뒤에 오는 ‘ㅎ’이 축약되어 ‘ㅍ’으로 발음되고 있다. 이것은 자음군 단순화와는 무관한 현상이다.

24) ㉡ ① [자음 동화의 분류] ‘달+님 → [달림]’은 앞에 오는 자음 ‘ㄹ’의 조음 방법에 동화되어 뒤에 오는 자음 ‘ㄴ’이 ‘ㄹ’로 바뀐 동화 현상이므로 ㉢에 속한다. ‘작+년 → [장년]’은 뒤에 오는 자음 ‘ㄴ’의 조음 방법에 동화되어 앞에 오는 자음 ‘ㄱ’이 ‘ㅇ’으로 바뀐 동화 현상이므로 ㉣에 속한다. ㉣ ② ‘국+물 → [궁물]’은 뒤에 오는 자음 ‘ㅁ’의 조음 방법에 동화되어 앞에 오는 자음 ‘ㄱ’이 ‘ㅇ’으로 바뀐 동화 현상이므로 ㉢이 아니라 ㉣에 속한다. ‘칼+날 → [칼탈]’은 앞에 오는 자음 ‘ㄹ’의 조음 방법에 동화되어 뒤에 오는 자음 ‘ㄴ’이 ‘ㄹ’로 바뀐 동화 현상이므로 ㉣이 아니라 ㉢에 속한다. ③ ‘달+님 → [달림]’은 ㉢에 속한다. ‘능+력 → [능녁]’은 앞에 오는 자음 ‘ㅇ’의 조음 방법에 동화되어 뒤에 오는 자음 ‘ㄹ’이 ‘ㄴ’으로 바뀐 동화 현상이므로 ㉣이 아니라 ㉢에 속한다. ④ ‘국+물 → [궁물]’은 ㉢이 아니라 ㉣에 속한다. ‘능+력 → [능녁]’은 ㉣이 아니라 ㉢에 속한다. ⑤ ‘권+리 → [퀀리]’는 뒤에 오는 ‘ㄹ’의 조음 방법에 동화되어 앞에 오는 ‘ㄴ’이 ‘ㄹ’로 바뀐 동화 현상이므로 ㉢이 아니라 ㉣에 속한다. ‘작+년 → [장년]’은 ㉣에 속한다.

25) ㉡ ③ [표준 발음법] ‘들꺾잎’은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된 경우이므로 사이시옷을 [ㄴ]으로 발음하고 ‘이’ 음에 [ㄴ]을 첨가하여 [들꺾닙]으로 발음해야 표준 발음이 된다. ㉣ ① ‘햇살’은 ‘ㅅ’으로 시작하는 ‘살’ 앞에 사이시옷이 온 경우이므로 [해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며 [햐쌀]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② ‘꺾날’은 사이시옷 뒤에 ‘ㄴ’이 결합된 경우이므로 사이시옷을 [ㄴ]으로 발음하여 [꺾날]로 발음하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④ ‘벧머리’는 사이시옷 뒤에 ‘ㅁ’이 결합된 경우이므로 사이시옷을 [ㄴ]으로 발음하여 [벧머리]로 발음하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⑤ ‘고꺾짓’은 ‘ㅈ’으로 시작하는 ‘짓’ 앞에 사이시옷이 온 경우이므로 [고꺾짚]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꺾짚]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26) ㉡ ③ [음운 변동 이해] (나)의 ‘쏘이어 → [쫘어]’는 모음 축약의 예이고, ‘꽃잎 → [꼇닙]’은 자음 첨가의 예이므로 ㉢과 ㉣에 해당하는 적절한 사례이다. (다)의 ‘누이 + 어 → [뉘어]’는 모음 축약의 예이고, ‘물 + 약 → [물락]’은 자음 첨가의 예이므로 ㉢과 ㉣에 해당하는 적절한 사례이다. (가)의 ‘피 + 어 → [피어]’는 반모음 첨가의 예이므로 ㉢



음운의 변동

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니고, '설 + 날 → [설탈]'은 'ㄴ'이 'ㄹ'로 교체된 예이므로 ㉔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니다. (라)의 '나서 + 어 → [나서]'는 모음이 탈락한 예이므로 ㉔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니고, '밥 + 물 → [밤물]'은 자음이 교체된 예이므로 ㉔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니다.

27) ㉔ ① [음운 변동 이해] '크+어 → [커]'는 단모음 '으'가 탈락한 예이다. '이기+어 → [이겨]'는 단모음 '이'가 반모음 'j'로 바뀐 예이다. '뛰+어 → [뛰여]'는 둘째 음절에 반모음 'j'가 첨가된 예이다. ㉔ ② '크+어 → [커]'는 단모음 '으'가 탈락한 예이다. '세우+어 → [세워]'는 단모음 '우'가 반모음 'w'로 바뀐 예이다. '꾸+어 → [꿔:]'는 반모음이 첨가된 예가 아니고 단모음 '우'가 반모음 'w'로 바뀐 예이다. ③ '피+어 → [피여]'는 단모음이 탈락된 예가 아니고 둘째 음절에 반모음 'j'가 첨가된 예이다. '이 기+어 → [이겨]'는 단모음 '이'가 반모음 'j'로 바뀐 예이다. '서+어 → [서]'는 반모음이 첨가된 예가 아니고 단모음 '어'가 탈락한 예이다. ④ '서+어 → [서]'는 단모음 '어'가 탈락한 예이다. '나가+아 → [나가]'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뀐 예가 아니고 단모음 '아'가 탈락한 예이다. '뛰+어 → [뛰여]'는 둘째 음절에 반모음 'j'가 첨가된 예이다. '나 가+아 → [나가]'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뀐 예가 아니고 단모음 '아'가 탈락한 예이다. '꾸+어 → [꿔:]'는 반모음이 첨가된 예가 아니고 단모음 '우'가 반모음 'w'로 바뀐 예이다.

28) ㉔ ⑤ [표준 발음법 적용하기] '홀이불'은 [홀이불](제9항)→[홀니불](제29항)→[흔니불](제18항)로 되는 단어이다. <보기>와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㉔ ① '뫼난이'는 [뫼난이](제9항)→[뫼나니](제18항)의 과정을 거친다. ② '부억문'은 [부억문](제9항)→[부영문](제18항)의 과정을 거친다. ③ '색연필'은 [색연필](제29항)→[생년필](제18항)의 과정을 거친다. ④ '웃맵씨'는 [웃맵씨](제9항)→[온맵씨](제18항)의 과정을 거친다.

29) ㉔ ② [음운 변동에 대한 이해] 음운의 탈락 현상을 분석하려면 밑줄 친 단어를 발음한 다음, 원래 단어와 그 단어의 발음을 비교해 보고 발음하는 과정에서 음운이 탈락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불도 꺼: 끄- + -어(음성 모음) →-'탈락 ·머리가 아파: 아프- + -아(양성 모음) →-'탈락. '끄다'의 어간 '끄-'는 음성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어') 앞에서 모음 '-가 탈락되었지만, '아프다'의 어간 '아프-'는 양성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아') 앞에서 모음 '-가 탈락되었다. 따라서 어간의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만 탈락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㉔ ① 줄--+니 →조니[조니], 줄--+니 →주니[주니] ·ㄹ 탈락: 줄→조, 줄→주 ③ 쌓--+아 →쌓아[싸아], 낱--+아 →낱아[나아] ·ㅎ 탈락: 쌓→싸, 낱 → 나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음. ④ 자--+아 →자[자] 가--+아 →가[가] ·동음 탈락: 자아 →자, 가아→가 ⑤ 줄--+고 →줄고[줄고], 줄--+고 →줄고[줄고], 끄--+고 →끄고[끄고], 아프--+고 →아프고[아프고], 쌓--+고 →쌓고[싸코], 낱--+고 →낱고[나코], 자--+고 →자고[자고], 가--+고 →가고[가고] ·축약: ㅎ+ㄱ→ㅋ

30) ㉔ ① [음운변동과 표기] 기본형이 '담그다'이다. '담그다'는 '담그고, 담그니, 담가서(담가)' 등으로 활용한다. '김치를 담아 먹다'나 '김치를 담귀 먹다'는 틀린 표현이다. '김치를 담가 먹다'라고 써야 한다. (참고로 '겨울철에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을 '김장'이라고 한다. 따라서 '김장을 담그다'는 '역전 앞'처럼 겹말이라는 것도 알아 두자. '김치를 담그다'나 '김장하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써야 한다. ㉔ ② '누가 우리 귀한 아들을 나무래?'에서 '나무래'는 '나무라-'와 '-아'의 결합에서 어간의 끝 모음이 탈락한 것이므로 '나무라'로 써야 한다는 것은 올바르게 수정한 것이다. ③ '꼭 가 보고 싶다만은 그럴 여유가 없구나.'에서 '만은'은 역접의 의미가 없으므로 그러한 의미를 갖는 '마는'이나 '만'으로 써야 한다는 것은 올바르게 수정한 것이다. ④ '이번에는 정말 시험을 잘 치뤘 대학의 꿈을 이루자.'에서 '치뤘'는 기본형이 '치르다'이지, '치루다'가 아니다. 따라서 '치루'+어'의 결합인 '치뤘'는 틀린 표현이다. ⑤ '이 부분은 같은 간격으로 띠어 쓰는 것이 좋겠다.'에서 '띠어'는 '뜨'와 '이'가 결합하여 '뜨'가 된다.